

## 스웨코 신임 대표이사에 이주호 씨



전기절연물 전문기업인 스웨코는 7일 이주호 부사장 겸 기술연구소장이 대표이사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경호 대표이사는 회장직을 맡게 된다.

신임 이주호 대표이사는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1988년 스웨코에 입사한 후 기술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며 기술 개발에 전념해왔다.

### 인사

#### 한국수력원자력

#### ◆1(울)직급 승격 (본사)

▲신재생사업처 재생에너지사업팀장 최한수 (서울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기술실 정비기술팀장 홍승구 ▲제1건설소장 이형범 (무주양수) ▲발전소장 이승재 (중앙연구원) ▲연구전략실 연구정책팀장 김요한 ▲신형원전연구소 설계기술그룹장 이재근 ▲설비기술연구소 비파괴기술그룹장 김용식 ▲설비기술연구소 비파괴기술그룹 책임전문원 강용식 ▲계통안전연구소 노심해석그룹 책임연구원 신호철 ▲방사선환경연구소 화학환경그룹 책임전문원 성기방 ▲플랜트 건설기술연구소 부지구조그룹장 이숙경

▲1(울)직급 승격 및 보직이동 (본사) ▲조달처 동반성장팀장 전영태 ▲엔지니어링처 설계엔지니어링팀장 김선복 ▲건설처 신고리3.4PM 이영환 ▲건설처 신한울1.2PM 최상성 ▲고리원자력본부 ▲교육훈련센터장 박원서 ▲제1발전소 기술실장 조봉호 ▲제3발전소 기술실장 광택현 (한빛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 경영지원실장 김태근 ▲제1발전소 운영실장 윤용배 ▲제1발전소 기술실장 서영주 ▲제3발전소 운영실장 김성면 (울성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운영실장 김재원 ▲제2발전소 기술실장 신해철 ▲제3발전소 운영실장 김광환 (한울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운영실장 이대환 ▲제3발전소 기술실장 신우식 ▲신한울제1발전소 운영기술실장 고효제 ▲제3발전소 방사선안전팀장 이상구 (서울원자력본부) ▲제1건설소 기전실장 조석진 ▲제1건설소 토건설장 방창준 ▲제2건설소 기전실장 노희상 ▲제2건설소 토건설장 안성식 (한강수력본부) ▲청평수력발전소장 박승철 (중앙연구원) ▲연구지원실장 배주섭 ▲수석(울)연구원 이상호 (아라바디지사) ▲바라카제2발전소 시운전실장 김한성

▲신규보임 ▲감사부장 전창철 ▲인증산업본부장 김진수 ▲디지털산업본부장 장태현 ▲시스템융합본부장 서상민 ▲전보 ▲기획조정본부장 조원서 ▲경영지원본부장 김준섭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신규보임 ▲감사부장

전창철 ▲인증산업본부장 김진수 ▲디지털산업본부장 장태현 ▲시스템융합본부장 서상민 ▲전보 ▲기획조정본부장 조원서 ▲경영지원본부장 김준섭

▲신규보임 ▲감사부장 전창철 ▲인증산업본부장 김진수 ▲디지털산업본부장 장태현 ▲시스템융합본부장 서상민 ▲전보 ▲기획조정본부장 조원서 ▲경영지원본부장 김준섭

### 우리 회사?

#### (11) 지엔씨에너지 문용균 부장·김인식 차장

“매번 업무로만 만나던 동료들과 팀이 돼 몸을 부대끼고, 땀 흘리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즐거기만 하는 탓에 성적이 조금 아쉽다는 것만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비상발전기 분야 국내시장 톱랭커인 지엔씨에너지는 사내 동호회 및 개인의 취미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이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좀더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회사 차원에서 다양한 모임을 장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모임이 사회인 야구팀인 ‘어처구니 야구단’이다. 회사의 지원과 별개로 지엔씨에너지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야구단엔 어느새 10명 남짓한 직원들이 선수로 참여하고 있다. 야구단 구성원의 절반은 ‘지엔씨에너지’ 소속인 셈이다.

덕분에 ‘사내 모임화’ 된 야구단의 주축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문용균 플랜트 영업팀 부장과 김인식 생산본부 C/S파트 차장은 이 곳 야구단에서 필드의 야전 사령관인 포수와 호타준족의 상징인 외야수를 각각 맡고 있다.

야구단 초창기 멤버인 김인식 차장은 ‘어처구니’라는 이름을 지은 장본인이다. “야구단의 시작부터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처음엔 야구를 좋아하는 지인들이 모여 캐치볼을 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점점 모이게 되



(왼쪽부터)지엔씨에너지의 문용균 플랜트영업팀 부장과 김인식 생산본부 C/S파트 차장 등 ‘어처구니 야구단’ 소속 선수들이 올해 리그 경기에서의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조정훈 기자)

## “어처구니’ 없이 시작한 게 삶의 일부가 됐죠”

### ‘야구’란 공통의 관심사로 자연스럽게 소통, 모두가 형·동생

고, 어느새 한 팀이 돼서 야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구단의 구성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어처구니 없이 시작한 모임이라곤 하지만, 사실 이 야구단은 올해로 창단 9년째를 맞은 ‘똘똘’한 구단이다. 전통이 있는 구단답게 팀의 모토인 즐기는 야구에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에서 열리는 사회인 리그에 참가하고 있다는 문용균 부장은 올해 목표로 소박하지만, 절실한 ‘1승’을 꼽았다.

“사실 승률은 그리 좋지 않아요. 한 데 모여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경기 시작한 두시간 전에 몸을 푸는 게 전부거든요. 다들 연습에선 잘 하는데, 몸 푸는데 너무 몰입해서인지 막상 본 경기에선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쉽습니다.”

몸 풀기에 집중할 탓에 이길 때보다 지는 경기가 많지만 야구단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게 문용균의 말이다. 그는 “전기·발전 분야의 전기인들로만 구성된 덕분에 업계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데 장점이 많다”면서 “일에선 선·후배, 협력사 사이지만 야구단에선 모두들 형·동생이 된다. 어려운 애기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고, 서로 협력하는 쪽으로 대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귀띔했다.

“야구 자체가 가진 매력도 너무 많지요. 하지만 어처구니 야구단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야구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 내에서야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눠지지만 필드 위에선 모두가 똑같은 선수들이니까요.”

조정훈 기자 jhj@

## 중기 ‘동반성장협의회’ 출범

### 한수원, 협력사 간 소통·협력 강화

한수원이 협력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은 3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재훈 사장과 협력중소기업 75개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의는 협력중소기업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과 교류활동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기계기술, 계전기술, 일반기술, 해외시장개척 등 4개 분야에 총 75개 협력사가 참여하며, 분야별 운영계획에 따라 정기총회, 간담회, 벤치마킹 등 교류 및 협력활동을 시행하기로 했다.

조재학 기자 jh@

## 전기기술인협, 회원 복지 프로그램 개발 앞장



한국전기기술인협회(회장 김선복·오른쪽)가 회원복지 향상을 위한 생애설계교육에 나섰다.

협회는 지난달 29일 인양에 위치한 교육관에서 한국생애설계포럼과 업무제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회원의 인성 및 생애설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맞춤형 생애설계상담과 컨설팅지원,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마련됐다.

김 회장은 “회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포럼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올 하반기 시범교육을 시작으로 두 기관이 발전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상호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승훈 생애설계포럼 대표는 “좋은 자리를 만들어준 원장님과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협회 회원의 행복한 노후설계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교 기자 kimsk@

## 조현상 효성 사장, 룩셈부르크 총리와 면담



조현상 효성 총괄사장(오른쪽 첫 번째)이 룩셈부르크 자비에르 베텔 총리(왼쪽 두 번째)와 단독 면담을 가졌다.

조현상 효성 총괄사장이 방한 중인 룩셈부르크 자비에르 베텔(Xavier Bettel) 총리의 요청에 따라 단독 면담을 가졌다.

효성은 자비에르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가 조 사장과 단독 면담을 갖고 룩셈부르크 타이어 공장을 잘 운영해 준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한국과의 협력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효성은 지난 2006년과 2010년 룩셈부르크타이어 코드 공장을 인수해 섬유코드와 스틸코드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량을 유럽에 수출하고 있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효성과의 협력과 관계 강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세준 기자 21ssj@



# 전설 자재 전문 기업 (주)만희기전

## wieland 방수용 원형 커넥터

RST 시리즈 2,3,4,5-pole, 250/400V, 8,16,25,32,50A



## JOKARI 전선탄피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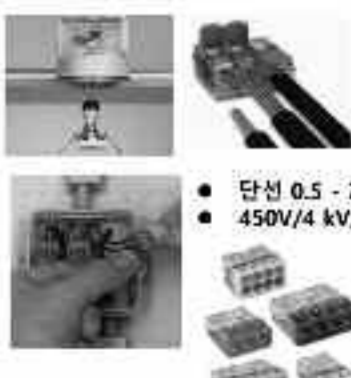
작업성이 용이 하고, 신속하며, 안전하게 케이블 커팅, 스트리핑 처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제품입니다.



## WAGO 꽃음형 전선 커넥터



- 연선 0.14 - 4 mm<sup>2</sup>
- 단선 0.2 - 4 mm<sup>2</sup>
- 450 V/4 kV/32A



- 단선 0.5 - 2.5mm<sup>2</sup>
- 450V/4 kV/24A

## DEHN 서지보호기, 피뢰, 접지, 전기안전용품



### Safety Equipment

